

LPGA 첫 우승 재미교포 앤드리아 리 “삼겹살, 빅뱅 좋아”

앤드리아 리(한국어 이름 이유경·사진), 골프 마니아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골퍼이다.

지난 19일 '몬스터집'에 따르면 재미 한인교포 부모를 둔 앤드리아 리는 캘리포니아주 허모사 비치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8살 때 처음 골프 클럽을 잡았으며 주니어와 아마추어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스탠포드대학교에 진학했다.



앤드리아는 지난 19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터 컨트리클럽에서 마무리된 어메이징크리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버디만 무려 여덟개를 잡아내는 맹타를 휘두르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자신의 프로 첫 우승이다.

그는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유창하다. 자신이 한국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앤드리아는 우승 후 한국어로 “기분이 너무 좋고, 자랑스럽다. 오늘 이길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 더 응원해달라.”고 한국팬들에게 인사했다.

삼겹살을 좋아한다는 앤드리아는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서는 “빅뱅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블랙핑크와 BTS도 많이 듣는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사진=lpqa.com

스탠포드 시절인 2018 본교 연습 코스에서 12언더파 58타라는 신기록을 적어내며 실력을 입증했다. 60타를 깨는 것은 모든 골퍼들의 꿈인데 아마추어가 그 기록을 깬 것이다.

이후 2019년 LPGA Q스쿨을 통해 프로에 전향한 그는 2020년 마라톤 클래식과 브리티시 오픈에서 톱10을 기록, 프로 무대에 연착륙 했고, 올 시즌 그의 진가를 보여주었다.

‘대머리’ 제임스 ... 제임스의 조던 따라하기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사진)가 머리카락을 모두 민 사진을 공유해 관심을 모았다.



환영한다.”라고 적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제임스가 인스타그램 필터를 사용해 ‘대머리’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마니아타임즈’에 따르면 제임스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 이발소에서 머리카락을 모두 깎은 사진을 올렸다. 그러자 각종 매체들은 “이는 제임스의 마이클 조던 따라하기다. 또한 새 시즌을 준비하는 그의 각오가 얼마나 다부진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임스는 2022-2023시즌을 앞두고 지나칠 정도로 연습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선수들이 쉬고 있을 때에도 개인훈련을 계속 하고, 프로암 경기에도 2차례 참여하기도 했다. 또 미니 캠프도 여는 등 37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체력도 과시하고 있다.

실제로 제임스는 조던처럼 되기 위해 유니폼 번호 23을 달기도 했다(지금은 6번). 그리고 조던은 현역 시절 머리 상태에서 경기했다.

레이커스는 제임스의 이 같은 왕성한 활동을 반기고 있다. 이런 활동이 시즌 중 제임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제임스가 새 시즌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사진=인스타그램스토리(kingjames)

제임스의 새로운 모습에 팬들은 열광했다. 팬들은 대부분 제임스의 SNS에 “대머리 클럽”에 합류한 것을

오타니, WBC 한일전 출격 유력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28·LA 에인절스·사진)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 한일전에 출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엑스포츠뉴스’에 따르면 일본 ‘스포츠포스트’은 이날 오타니 에이전트를 인용해 “오타니는 WBC 참가 의지가 강하다. 나도 오타니의 출전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전했다. 아직 오타니의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WBC 1라운드 시작되기 전에 일본으로 향할 예정이다.

WBC는 내년 3월 일본에서 개최된다. 일본은 한국, 호주, 중국 등과 B조에 편성됐고, 3월 9일부터 13일까지 홈구장 도쿄돔에서 1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5팀이 풀리그를 치르고 상위 2팀이 2라운드에 진출한다. 오타니가 1라운드부터 경기에 나서게 되면, 전력을 쏟아야 하는 3월 10일 한국전에 등장할 확률이 가장 높다.

오타니는 2015 프리미어12에서 한국을 상대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였다. 2차례 등판해 12%이닝 3피안타 3사사구 21탈삼진 무실점 과력투를 펼쳤다. 타자로는 나서지 않았다.

오는 WBC에서는 오타니의 투타 겸업 여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아메리칸리그 MVP를 차지한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투타겸업의 아이콘이 되었다.

오타니는 소속팀 LA 에인절스의 스프링캠프에 참가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2월 미야자키에서 열리는 대표팀 소집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오타니는 내년 3월 초 일본 대표팀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spread-sports.jp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499	\$274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2년 현재 170.1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719	\$2,309
Asset Limit	\$15,510	\$30,95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김 예 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 6400643@gmail.com